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가 전략이며 국정 비전으로 떠오른

녹색성장 2년, 흔들리지 않는 길을 만들다



지구가 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몇 달간 밤에도 잠을 설치게 하는 고온 현상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세계 평균의 2배 이상 상승하여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먹이 사슬 교란 등을 통해 인류 생존을 위협한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꿀벌이 집단적으로 사라지는 봉군붕괴(CCD; Colony Collapse Disorder)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중요한 요인으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받고 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이제는 두려워진다.

단순한 환경 개선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기여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EU는 작년 4월부터 「기후변화종합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온실가스배출량 보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008년 8월 15일,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향후 60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의 핵심 부처인 환경부는 작년 1월부터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녹색 생활문화 실천, 국민건강 보호 등 녹색성장의 주요 과제와, 환경보전-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완성시켜 줄 가장 중요한 고리인 환경 기술·산업의 육성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공업도시의 대표격이었던 울산이 최근 눈부신 환경개선을 이룬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오염방지 및 저감 등 환경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단순한 환경 개선 효과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국고 약 1조원을 지원하여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 대기오염 처리기술, 전자폐수배출 최소화기술, 환경매체 측정기술 등을 국산화하여 우리 환경기술 수준을 크게 높인 바 있다. 내년부터는 10년간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 환경시장을 이끌어갈 최고 환경기술(Global Top Technology) 개발이 포함된 「차세대 Eco-Innovation 기술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윤 중 수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행정대학원 졸업 환경공학 박사
'82 행정고시(26회) 합격
'93.8~2010.4 : 환경부 법무담당관, 지구환경담당관,
폐기물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자원순환
국장, 상하수도국장, 기후대기정책관
tel. 02-2110-7940 | jsooon813@korea.kr

대통령께서 200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지 2년이 지나고 있다. 올 광복절에는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이 변함 없는 국가 전략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그간 각 부처와 기관의 노력으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시행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은 각국 정부와 UN환경계획 등 국제기구가 주목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되었다.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남은 과제도 그만큼 많다. 다음 세대까지 고려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동력 확충, 국민건강 보호를 녹색 성장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환경신기술 개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정부 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과 함께, 친환경 운전 문화, 녹색 소비·구매, 녹색 생활 등 전 국가적 노력으로 녹색 사회 문화 정착이 필요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녹색 문화는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의 참여가 없이는 정착되기 어렵다.

환경보전과 성장이라는 일견 상치되는 개념을 아우르는 ‘녹색 성장’이 쉬운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중국의 사상가 노신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 길이란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지키고, 지구를 살리는 녹색 성장의 길에 온 국민의 애정어린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 정부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녹색성장이 바른 길이라면,
이것은 또한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길이다.
기우제의 신통력으로 유명한
북미 라코타족 호피 원주민들처럼.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비가 오는 비밀을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비가 올 수 밖에 없지요.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요’

